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16일 2년여 만의 오랜 논의 끝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물론 국회의 심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했던 영월 동강댐, 새만금 간척, 사회호 담수화, 경부고속철도, 밀양 송전탑,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많은 국책사업들이 단순히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이념과 가치

국민대통합 위한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 필요

관의 갈등,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됐다.

비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구성원 간의 다양한 갈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책사업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부는 국책사업의 정책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국책사업에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국민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여 추진하는 데 협력자이자 조인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된다.

만약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책사업일수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공약사업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가 있다.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계획은 그 결과물이 공간화, 즉 지도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계획의 공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계획의 주요 근거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토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한 환경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보급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합의 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통합적 사고와 지식, 소양 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칼럼



정진웅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센터 과장

지난해 가을 재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김영자(여·47)씨는 지난 주 동료들과 함께 신년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평소 회사 생활에 의욕적인 김씨는 오고가는 술잔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과음을 하게된 김씨는 귀가하던 중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을 방문한 김씨는 치료를 위한 기본 검사로 혈액검사를 받았다. 골절은 무난히 치료 중이다. 하지만 치료과정에서 뜻밖에도 자신이 C형 간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술은 간염,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자주 지목된다. 만성음주자 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환자의 10~20% 정도에 그친다.

심각한 간 질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이러스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의 70~80%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며, 만성화되지 않는 A형 간염을 제외하면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한국인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B·C형 간염이 만성화되면 간 세포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 간 이 딱딱해지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른 바 간경변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수가 차 호흡곤란을 겪거나 황달, 식도정맥류, 간성 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간경변증은 무엇보다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사망률 2위인 간암은 나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재발할까지 높아 위험성이 높은 암으로 분류된다.

일단 간염 등 간 질환이 발생했다면 질

회식 잦은 신년 건강, 간부터 챙기세요

환의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질환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간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를 피해야 한다. 술은 절대 금물이다.

문제는 간염을 비롯한 간 질환 대부분이 자각 증세가 미미해 증세가 상당히 발전할 때까지 질환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김씨와 같이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최근 자체 블로그와 SNS를 통해 ‘간 연말정산 하세요!’라는 자체 설문 이벤트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휴식을 취해도 피로와 무력감이 가시지 않는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기 안 된다 등의 질문에는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변 색깔이 옅어진다 ▲젓가슴이 예전과 달라진다 등의 질문에서는 응답률이 5% 안팎으로 미미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간

질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증상들이 많았다”며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던 간이 나빠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간 질환 환자 대부분이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거나, 골절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검사를 받다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 질환의 발생여부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검사는 필수적이다.

간 질환 예측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일반적이다. 혈액검사는 간의 염증반응, 바이러스 보균상태, 간 기능의 이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초음파검사는 간 모양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간경변증 진행여부나 간 종양의 생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증상에 맞는 검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이당제
시인·수필가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해 올미년은 양의 해다. 지난 갑오년이면 역년 말의 해여서일까! 분주하고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올해는 양처럼 순탄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떠오른 태양과 내일 떠오른 태양이 별다를 것 하나 없지만 사람들은 바뀐 새해와 더불어 늘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히라(비비안 리)는 복원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거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좌절을 모르는 투혼으로 버티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요즘은 잠으로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다. 예전 끼니를 걱정하던 보리 고개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지 않았는데 살기 좋아졌다는 요즘엔 하루 평균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 세상으로 간다. 한 해에 자살자가 1만5330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다. 왜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까? 희망을 잃어버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더하여 4포(인간관계 포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후가 준비 안 된 노인세대의 증가가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몸과 마음을 의지할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자살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텐데 인간관계 포기, 즉 홀로 절망의 선택이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는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희망은 자본이 들지 않는다. 희망사업은 무일푼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잘되면 대박도 될 수 있고 밀려서 본전이다.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희망은 공짜다. 배경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희망의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춘다. 대학시험에 낙방한 학생들, 취직시험이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희망이 없다고 닳두리하지 마라. 희망은

무한히 열려 있다. 아무 돈도 들이지 않는 희망하나 붙잡고 허공이라도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하늘도 감동해 반응할 것이다. 이래도 희망이 없다고 자살할 것인가? 도도하게 흐르는 양쯔강도 남양에서 비롯된다. 술잔 하나 넘칠 정도의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 강을 이룬다는 말이다. 스티브 잡스는 종교자를 팔아 마련한 1300불로 ‘애플’을 시작했다. 이처럼 새해엔 뭔가 새로 시작해 보자.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숨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뚝 스피로 스페로. (Dum spiro spero)” 아직 숨이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 된다, 절대 죽지만 마라. 희망은 있다.

어느 부부가 화재로 집을 몽땅 불타버렸다. 주위 사람들이 “가산을 모두 태워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했을 때 그 부부는 “재산은 모두 타버렸지만 우리 가족의 ‘희망 하나’는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태워버리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자기의 희망은 손 댈 수 없는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가치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죽지만 않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희망이 뜬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전남소방차 절반이 ‘골든타임’ 놓치다니

전남지역에서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률이 57%에 불과해 화재 진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서벽지가 많은 여건상의 문제도 있지만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20건에 달했지만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해 진압한 화재는 57.1%인 1498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같은 도착률은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차별 5분 내 도착률은 광양소방서가 72.9%, 여수 72.6%, 목포 64.5%, 나주 58.8%, 순천 57.7%로 나타났다. 강진(55.9%)과 해남(51.6%)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치에 밑돌았고 화순(49.0%), 담양(42.3%)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방차가 10분 내 도착해 불을 끈 경우는 606건(23.1%), 20분 내

도착도 440건(16.8%)이나 됐다.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압시점을 놓치면 화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은 도서벽지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잦타미가 되기 일쑤다.

소방서와 장비·인력도 태부족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만 보더라도 담양소방서가 담양·장성·곡성 등 3개 군을 맡고 있어 37km나 떨어진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안전처와 전남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소방서를 세분화해 늘리고 인력과 장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 물론 예산 상 한계면에서 개선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 취약지역부터 늘려 가야 한다. 앞서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광주 아동학대 무관심 인권도시 자격 있나

광주가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발견해 신고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을 이렇듯 방치하고 과연 인권도시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할 어른들로서 낮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0.37%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다. 그나마 전남을 발견율이 1.1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양호한 편이었다.

전남은 아동보호기관도 3곳에 상당원 수가 23명인데, 광주는 단 1곳에 상당원은 8명뿐이다. 이 때문에 기관당 관리아동수가 광주는 32만17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관 1곳당 전국 평균 18만 명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다.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학대 발생건수가 많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종사자 등 피해아동을 찾아내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2013년 광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79건으로 전년 대비 15.3%나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인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구 150만·아동인구 32만 명의 대도시인 광주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후진도시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아동들의 피해예방과 치료, 보호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는 민선 6기 ‘따뜻한 복지도시’라는 시정목표는 헛구호에 그친다. 아동 관련 예산증액과 전문기관 추가 설치 외에 대안이 없다.

보고서에서는 또 아동학대 기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이고 가정의 달 전후인 5~6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 내 사생활이라는, 혹은 자식교육이라는 핑계로 저지르는 폭력은 중대범죄다. 기성세대는 가족이건 아니건 아동을 이 사회에서 함께 보살피고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無等鼓

여아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기로 의결을 모았다.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지 4년,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한 지 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진 않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1회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다. 이 싸움을 그리기 위해 그는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썼다. 성서 다음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의 수리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형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1차 규제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와 가족까지 포함돼 적용 대상이 전 국민의 40%에 이르게 된다는 점, 원안의 핵심 내용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새로 설정한 엄격한 청렴기준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개혁 법안이라 하겠다.

청정 공화국

장 많이 읽혀졌다. 이 작품은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내적 투쟁의 기록을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장발장이 악한 장발장을 이기는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통한 선한 장발장의 자아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을 함으로써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191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